

이건희 충남대 교수, 수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

조은솔 | 승인 2021.12.15 16:02



이건희 충남대 수학과 교수.

이건희 충남대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가 대한수학회로부터 공로상을 받고, 이를 기념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.

15일 충남대에 따르면 이건희 교수는 `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`에서 수학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. 그는 공로상 상금 전액과 자신의 사재를 보태 총 1000만 원을 대학에 전달하고 수학과 발전기금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.

이 교수는 "내년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, 40년 가까이 인재양성과 연구 외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준 충남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"며 "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수학과 발전과 제자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한편, 이 교수는 지난 1984년부터 37년간 충남대에 재직했으며 그 동안 외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의 박사 배출, 7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. 또, 충남대 BK사업팀장, 대한수학회 수석부회장, 충청수학회 회장, 동역학회 분야의 SCI 주요 저널인 `Dynamical System: An International Journal` 에디터 등 활동과 함께 지난 2014년 `수학계의 올림픽`으로 불리는 세계수학자대회의 동력계 분야 국제학술회의를 충남대에 유치,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등 수학 분야 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. 조은솔 기자

<저작권자©대전일보사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>



조은솔 2omsol2@daejonilbo.com

